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94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5.28~2026.06.04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위성곤(전국동시/지지), 미래, 호소, 도의원, 청년
경제·관광	상승, 청년, 가격, 주택, 관광객
지역·사회	예방, 대응, 환자, 위반, 여성

※ 분석 기간 : 26.05.28.~26.06.04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위성곤(전국동시/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압도적 당선 - 민주당 동반 승리와 책임 있는 도정 - 민생 회복 중심의 인수위 및 정책 추진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대전환 - AI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정책 - 청년이 돌아오는 미래도시 서귀포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막판 지지 호소 - 도민들의 공약 이행 및 정책 반영 호소 - 투표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변화 호소
	도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도적 현역 프리미엄과 무투표 당선 - 지방정치사에 남을 다채로운 진기록 - 13대 도의회의 견제와 균형 과제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맞춤형 일자리 - 청년 창업 생태계 및 문화 거점 조성 -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및 소통 강화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제주 소비자물가 3%대 큰 폭 상승 - 제주지역 기업심리지수 큰 폭 상승 전환 - 고품질 올해산 하우스감귤 도매가격 상승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장기체류 지원 프로그램 신청 쇄도 - 사회연대경제 조직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3곳 선정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면 및 삼계탕 등 외식 메뉴 가격 상승 - 소비 위축에도 마늘 수매가격 소폭 상향 - 종구 수요 감소에 따른 쪽파 가격 폭락난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침체 속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증가 - 해소 부진한 도내 미분양 주택 심각한 적체 - 제주 거주 외국인 소유 주택의 꾸준한 증가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편 감소 여파로 내국인 관광객 역성장 - 장기 체류 관광객 대상 여행 지원금 프로모션 - 높은 경쟁률의 준모항 크루즈 관광객 체험단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소방안전대책 추진 - 고령자 보행 사망사고 예방 위한 신호체계 개선 - 여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당부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 위한 민관 합동 신속 대응 -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 6·3 지방선거 불법 선거사범 24시간 감시 대응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 장애로 응급환자 수용 거부 후 심정지 사망 - 도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첫 확진 환자 발생 -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재택 호스피스 의료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벌금형 선고 -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사범 적발 - 투표 관리 공무원의 만취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정 사상 최초 선출직 여성 교육감 및 3선 도의원 - 여성 1인 가구 표적으로 삼은 가짜 경찰 침입 절도 - 쏟아지는 폭우 속 도로변 건던 70대 여성 휩쓸림

정치·행정	<p>위성곤 (전국동시/지지)</p>	<p>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도민까지 모두 소중한 도민으로 포용하고 70만 제주도민 전체의 일상적 행복을 위해 발로 뛰고 헌신하는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과 도정 운영 천명.</p> <p>- 민주당 동반 승리와 책임 있는 도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위성곤 당선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회 전체 45개 의석 중 34석을 차지하며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함. 이재명 정부의 긍정적인 국정 지지율 후광 효과 및 당내 경선 후보들과의 원팀 결성 시너지가 맞물리며 일 잘하고 힘 있는 유능한 집권 여당 지방정부를 향한 도민들의 강한 열망 표출. · 당선인을 비롯해 다수 의석을 성공적으로 확보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선거 캠프 합동 해단식을 개최하며 압도적인 도민 지지에 부응하는 책임 정치 실현 다짐. 새롭게 출범할 도지사과 의회가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벼랑 끝에 몰린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주요 도정 과제 집중 추진. <p>- 민생 회복 중심의 인수위 및 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 직후부터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즉각 보답하기 위해 민선 9기 제주도정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함. 각계각층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인선하고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치밀하게 설계하여 출범 즉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초석 마련. ·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이 보내준 뜨거운 지지의 핵심 요인을 지역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간절한 바람으로 해석하고 도지사 직속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가동 약속. 당선 직후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에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직접 듣고 억울함 없는 위대한 제주 시대를 열겠다는 굳은 의지 표명.
	<p>미래</p>	<p>-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대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을 중심으로 제주의 경제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공약. 관광과 1차 산업에 편중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 생태계 구축. ·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을 통해 전 세계 석학과 첨단 기업이 모여드는 연구 환경 조성.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든든한 산업 기반 마련. <p>- AI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생 개개인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 도입. AI 퍼스널 러닝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별 자기주도 학습 및 심리 모니터링 적극 지원. · 학생들을 하나의 정답으로 줄 세우는 낡은 과거 교육 탈피. 탄탄한 기초학력

	<p>미래</p>	<p>보장과 따뜻한 인성 교육을 융합하여 학생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에 교육행정 역량 집중.</p> <p>- 청년이 돌아오는 미래도시 서귀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를 청년들이 맘 편히 머물며 꿈을 키우는 '청년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청사진 제시.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기 착공 및 미래 신산업 유치를 통한 활기찬 청년 창업 거점 조성. · 레드·그린·화이트 바이오 등 첨단 바이오산업을 융합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서귀포의 신성장 동력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열어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도모.
<p>정치·행정</p>	<p>호소</p>	<p>-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막판 지지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들은 전통시장과 변화가를 돌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책임자임을 호소함. 3천억 규모의 긴급 민생 추경 등 골목상권에 숨통을 트일 즉각적인 경제 회복 대책 강조. · 장사가 안돼 한숨짓는 소상공인과 인력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절박한 목소리 대변. 거창한 정치 구호 대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와 현장 중심형 일꾼을 선택해줄 것을 읍소. <p>- 도민들의 공약 이행 및 정책 반영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농민, 청년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새롭게 출범하는 도정과 교육청에 초심을 잃지 말 것을 호소함. 심각한 소비 위축과 생산비 폭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과감 대책 촉구.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전면 확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의 조속한 시행,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현장의 절박한 요구사항이 도정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청. <p>- 투표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변화 호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투표일이 다가오며 여야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독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제주의 미래와 내일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강조하며 주권 행사 호소. · 민주당은 유능한 지방정부 완성을 위해, 국민의힘은 거대 정당의 독점 권력 견제를 위해 투표장으로 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민심의 척도인 투표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치열한 총력전 전개.
	<p>도의원</p>	<p>- 압도적 현역 프리미엄과 무투표 당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개 도의원 지역구에서 28명의 현역 후보가 출마해 이 중 23명이 의회 재입성에 성공함. 이번이 적은 높은 현역 생존율을 보이며 기존 정치인들의 탄탄한 지역 조직력 및 지지 기반 입증. ·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의 심각한 후보난으로 인해 역대 최다인 8명의 무투표 당선자 무더기 발생.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치열한 선거운동 없

	<p>도의원</p>	<p>이 일찌감치 제13대 도의회 입성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치사에 남을 다채로운 진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민주당 강성의 의원이 험난한 지역구를 뚫고 여성 3선 타이틀 획득.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4선 배지를 달며 도의회 내 최다선 의원 반열에 오르는 이정표 수립. · 전직 도의회 의장 출신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최초의 부녀(父女) 도의원 성공적 탄생. 불과 111표 차이로 당락이 엇갈린 대륜동 초접전 승부 등 선거구 곳곳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 연출. - 13대 도의회의 견제와 균형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75.6%를 장악하는 슈퍼 여당으로 등극하며 도정 운영의 강력한 주도권 확보. 막강한 의회 권력 집중으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견제 기능 약화 우려. · 국민의힘은 의석수 급감으로 교섭단체 유지에 만족하며 뼈아픈 쇄신과 체질 개선 과제 직면. 비례대표 1석을 얻은 조국혁신당과 유일한 진보당 지역구 당선인이 소수 야당으로서의 감시 역할 전담.
<p>정치·행정</p>	<p>청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맞춤형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제주를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공공 및 민간 차원의 융합 일자리 창출 약속. 미래 첨단 신산업 유치와 적극 연계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용 생태계 집중 조성. · '리턴 제주 2030'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 2천 호 공급 계획 발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주거 부담 완화를 동시에 해결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률 제고 도모. - 청년 창업 생태계 및 문화 거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체된 상권과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창업 공간과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는 '청년 힙스테이션' 조성 공약. 초기 임대료 지원 및 맞춤형 멘토링을 결합하여 청년 창업의 높은 진입 장벽 대폭 완화. · 제주시 원도심 등 노후화된 지역을 청년 친화형 정주 환경으로 재개발하여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기능 강화. 청년들이 동네 안에서 꿈을 키우고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화 거점 마련. -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및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할 도지사 직속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성 대두. 백화점식 유사 및 중복 사업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증대. · 제주를 명확히 대표할 수 있는 '청년 시그니처 사업'을 브랜드화하고 청년의 성장 단계별로 단절 없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와 소통 보장 요구.

경제·관광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장기체류 지원 프로그램 신청 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역 청년들이 제주 읍·면 숙소에 장기 체류하며 현지 문화를 경험하는 '청춘정거장 in 제주' 여름 시즌 모집 첫날에만 7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큰 관심을 받음. · 7, 8월 중 체류하는 청년들에게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며, 이주 선배 및 창업자와의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통해 제주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 - 사회연대경제 조직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들이 도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현장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고 사회적 가치 창출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업임. · 선발된 40명에게 행안부 기준을 넘는 월 253만 원의 제주도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안정을 보장하며, 내부 멘토의 밀착 면담과 취업 멘토링을 통해 원활한 취업을 도움. -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 3곳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노동자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일·생활 균형 및 고용 안정성 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 3곳을 선정하여 2년간 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신규 선정 기업들은 인위적 인력 감축 없이 2년 차 이상 청년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훌륭한 사내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내 고용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면 및 삼계탕 등 외식 메뉴 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가중, 배달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삼계탕과 냉면 등 제주지역 주요 외식 메뉴의 평균 가격이 일제히 가파르게 오름. · 냉면 평균 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고 삼계탕 가격도 전년 대비 꾸준히 상승하여 체감 부담이 커졌으며, 김밥과 칼국수 등 서민들이 찾는 외식 물가 전반으로 인상이 확산됨. - 소비 위축에도 마늘 수매가격 소폭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정농협 등 도내 9개 지역농협은 소비 위축과 경기 부진에도 농가의 수확 노고와 생산비 부담을 고려하여, 올해산 마늘 수매가를 당초 계약가보다 100원 상향 결정함. · 고령화와 수작업 의존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상인들의 발떼기 거래마저 실종되자, 농협은 계약 물량 외 추가 수탁 수매를 통해 판로 확보에 애먹는 농가의 시름을 덜어줌. - 종구 수요 감소에 따른 쪽파 가격 폭락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깐쪽파의 전국적 도매가격이 평년 절반 수준으로 폭락해 타지역 재배농가의 기대 수익이 낮아지면서, 제주산 종구 수요도 동반 급감하여 생산 농가들이 판로난과 가격 하락을 겪음. · 육지 농협의 신규 주문량이 작년의 40%로 줄고 박스 포장 의무화로 타지역 재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상인 판매도 막혀, 저장성 낮은 쪽파 종구의 대규모 산지 폐기가 우려됨.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침체 속 주택 인허가 및 착공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 기조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도 올해 1~4월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42.6% 급증하고 착공 물량도 37.4% 늘며 공급 부문이 회복세를 보임. · 공급 지표 상승과 함께 4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월 및 전년 대비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도 1년 전보다 28.1% 뛰어오르며 실거주 목적 중심의 시장 개선 흐름이 나타남. - 해소 부진한 도내 미분양 주택 심각한 적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인허가와 신규 착공 등 선행 공급 지표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임에도, 2700호 규모의 방대한 미분양 주택이 시장에 적체되어 분양 자금 순환과 건설 경기 회복을 가로막음. · 악성 물량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한 달간 9가구 축소에 그치며 석 달 연속 2200가구를 상회해, 매수 심리가 단기간 내 반전되어 적체 현상이 해소되기는 여전히 비관적임. - 제주 거주 외국인 소유 주택의 꾸준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개발사업과 이주민 증가 영향으로 외국인 소유 도내 주택 수가 1년 전보다 4.9% 증가한 1830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9번째 규모로 선호도가 높음. · 아파트, 연립 등 주거 편의성이 뛰어난 공동주택이 1234호로 전체의 67% 가까이 차지하며,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 토지 면적 역시 꾸준히 늘어 우도 면적의 3.3배 규모에 도달함.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편 감소 여파로 내국인 관광객 역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내국인 관광객 수가 5월 들어 전년 대비 7.2% 감소했으며, 이는 국제유가 급등과 국내선 유류할증료 폭등으로 가족 여행객의 경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탓임. · 대형 항공사 결합 심사 여파로 제주 노선 슬롯이 저비용항공사에 재배분되어 하루 공급 좌석이 약 1000석 급감했고, 이로 인한 요금 인상이 여름 성수기 관광 수요 회복의 큰 장애물임. - 장기 체류 관광객 대상 여행 지원금 프로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 시대 항공 요금 등 제주 여행 경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박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 개별관광객에게 지역화폐 등 맞춤형 여행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추진함. · 디지털 관광증 가입 후 체류를 인증하면 2~4박은 2만 원, 5박 이상은 5만 원을 제공하여, 관광객이 숨은 명소에 더 오래 머물게 함으로써 골목 상권 매출 증대와 경제를 활성화함. - 높은 경쟁률의 준모항 크루즈 관광객 체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출국 없이 제주 강정항에서 대형 크루즈에 승선해 주요 기항지를 관광하는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모집에 2596명이 몰리며 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큰 인기를 과시함. · 높은 호응은 도민 비용 부담을 낮춘 지원금과 제주 출발이라는 탁월한 접근성 덕분이며, 5월 말 기준 25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찾아 연말 유치 목표 80만 명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예방, 대응, 환자, 위반, 여성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 소방안전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 및 극심한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종합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다방면으로 강력하게 집중 추진함. · 대형공사장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구역의 주요 정보를 행정시 및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규모 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폭염 안전지킴이를 적극 운영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촘촘한 예찰 및 돌봄 활동을 철저히 전개함. - 고령자 보행 사망사고 예방 위한 신호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전체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심각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치경찰단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을 대폭 연장하는 맞춤형 개선안 적용. · 교차로 부근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 사이의 끔찍한 충돌 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하여 도내 최초로 보행자 우선출발신호 시스템을 주요 교차로에 시범 운영함으로써, 실제 횡단보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극적
-------	----	---

	예방	<p>으로 줄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성공적으로 조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기온 상승으로 야생 진드기의 서식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치사율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당국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숲길 산책 등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함. · 지역 농업인 및 감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농작업이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반드시 긴 소매 의류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오름과 올레길 등 주요 야외 활동 지역에 설치된 기피제 분사기 점검과 방역 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치명적인 감염병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
지역·사회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 위한 민관 합동 신속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날이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변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제주경찰청과 에스케이텔레콤이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원격 제어용 악성 앱 탐지 및 신속 차단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함. · 도내에 위치한 주요 통신사 공식 대리점 매장을 지역 고객 보호를 위한 안심 대피소로 특별 지정하여 방문 고객의 스마트 기기를 사전 검사하고,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한 경찰 신고와 맞춤형 상담 지원으로 즉각 이어지도록 민관 합동의 촘촘한 범죄 대응 체계를 확립함. -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인 제주포럼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와 해경 및 경찰 등 도내 주요 재난 관리 책임 기관들이 모두 모여 대형 재난 상황 발생을 정밀하게 가정한 실전 같은 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성공적으로 진행함. ·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숙박시설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와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긴급 상황을 부여받고, 각 참여 기관의 구체적인 임무 분담과 상호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공유하며 재난 시 유기적인 현장 지휘 및 신속한 초기 대응 절차를 철저히 점검함. - 6·3 지방선거 불법 선거사범 24시간 감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동시지방선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호하게 엄단하기 위하여, 제주경찰청은 관할 경찰서 내부 곳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흑색선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24시간 철저한 상시 감시 체제 유지. · 고질적인 금품 제공이나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흑색선전 등 중대한 5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무관용 수사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여 지역 사회 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전력.
	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 장애로 응급환자 수용 거부 후 심정지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제주대학교병원이 내부 전산 시스템의 전면적인 오류와 통신 장애를 결정적인 이유로 내세워 긴급한 응급 환자의 진료 수용을 거부하였고, 이후 다른 종합 병원으로 다급히 이송되던 70대 여성 환자가 도

지역·사회	환자	<p>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결국 안타깝게 사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대형 병원 측은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혈액검 등 정상적인 기본 진료가 불가해 규정된 내부 매뉴얼에 따라 타 병원 이송을 유도했다고 적극 해명했으나, 제주도 보건당국은 응급의료체계 운영의 법적 적절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 착수. <p>- 도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첫 확진 환자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온이 점차 상승하여 외부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초여름 시기를 맞이하여, 서귀포시 동부 지역에서 치명적인 야생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 확진 환자 2명이 올해 들어 제주도 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여 감염병 보건 관리에 심각한 비상이 걸림. · 해당 중증 감염 환자들은 심한 발열과 급격한 식욕 저하 등의 위험한 전조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도내 대형 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 후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제주도 보건당국은 이들의 진드기 노출력과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 역학조사에 돌입. <p>- 말기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재택 호스피스 의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생의 말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차가운 병실이 아닌 익숙한 거주지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고 편안하게 남은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의 궁극적인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됨. · 일본의 선구적인 재택 호스피스 권위자인 나이토 이즈미 선생의 최근 제주 방문 강연을 통하여, 말기 환자의 기본적인 존엄성 유지와 남아있는 가족의 무거운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포괄적인 지역 사회 단위의 선진적인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깊이 있게 논의됨.
	위반	<p>-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항소심 벌금형 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둘 불순한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조직적이고 허위로 발급받아 농지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최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이 파기되며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음. · 1심의 무죄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 방기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여 공공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을 준엄하게 꾸짖으며, 해당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백하고 중대한 유죄 범죄로 최종 판결함. <p>-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사범 적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탁하고 과열된 분위기 속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한 흑색선전과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 등 치명적인 불법 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경찰 당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명이 넘는 다수의 선거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하여 본격적이고 강도 높은 집중 수사 절차에 전격 돌입함. · 특히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도교육감 및 도지사 유력 후보 진영 간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 의혹 제기과 진흙탕식 상호 맞고발전이 선거 막판까지 심하게 격화되면서, 민주적 선거의 기본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수사 당국의 엄정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 요구.

	<p>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 관리 공무원의 만취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사전투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 도로를 이동 중이던 제주도내 모 읍사무소 소속 50대 현직 공무원이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심각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다가 경찰의 불시 음주 단속망에 걸려 덜미가 잡힘. · 도로 위에서 심하게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주행하는 차량을 우연히 목격한 일반 시민의 발 빠른 112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각 입건되었으며, 공직사회의 심각한 기강
<p>지역·사회</p>	<p>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정 사상 최초 선출직 여성 교육감 및 3선 도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에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헌정 사상 최초로 선출직 여성 도교육감과 지역구 3선 여성 도의원이 성공적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거둠에 따라, 도내 주요 여성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공식 발표하며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뜻깊은 정치적 성과에 큰 기대감 표출. · 이러한 경이로운 결과는 그동안 척박했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점차 실질적인 지역 리더십으로 굳건하게 확장되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나, 도의회 전체 의원 중 여성 비율이 여전히 저조한 편이어서 다양성 보장과 양성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함. - 여성 1인 가구 표적으로 삼은 가짜 경찰 침입 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매우 정교하게 위조해 낸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내세워, 홀로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압수수색을 강제 집행한다는 황당한 핑계로 무단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몽땅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범죄자가 경찰 수사망에 덜미를 잡힘. · 해당 악질적인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치안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철저히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는 등 다분한 고의성과 치밀함을 보였으나, 가짜 경찰 행세에 수상함을 뼈저리게 느낀 피해 여성의 침착한 112 신고 덕분에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긴급 체포되어 구속 수사. - 쏟아지는 폭우 속 도로변 걷던 70대 여성 휩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로 점차 부상하는 태풍 장미의 강력한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매섭게 쏟아지던 야간 시간대에,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변 배수로를 힘겹게 건너가던 70대 고령의 여성이 급격히 불어날 거센 빗물에 중심을 잃고 하천으로 휩쓸려 떠내려가는 수난 사고 발생. · 위험한 사고를 우연히 목격한 주변 시민의 다급한 구조 신고를 받고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다행히 무사히 극적으로 구조되었으며, 심한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되어 안정을 취하며 치료 중.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